

2022 상반기 <순장, 부순장 세미나> 교안(1)

<전체 주제 : 영적 터치, 인격적 만남> (시 73:23)

(시 73: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인격적 만남)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영적 터치)”

1. 예수님의 영적 터치를 받으라.

(눅 8:50-55)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경청) 이르시되(응답)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믿음)
그리하면 딸(사랑하는 사람)이 구원(회복)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달리다굼) ~
그 영이 돌아와(영의 회복)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몸의 회복)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생명의 회복)”

(마 9:18, 25)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절망적 상황)
오셔서(임재)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안수)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믿음)”

(눅 7:13-14)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주께서 ~ 불쌍히 여기사(공휼)
울지 말라(위로) 하시고 / 가까이 가서(만남) 그 관에 손을 대시니(터치)
~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생명의 회복)
~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가정의 회복)”

2. 예수님을 영적으로 터치하라.

(눅 8:43-44)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사람의 한계)
예수의 ~ 옷가에 손을 대니(예수님을 터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회복)”

‘예배’는 하나님께 손을 뻗어 ‘영적으로 터치’하는 시간이다.

이 땅에서 ‘손’을 들어 ‘하늘’을 터치하는 것이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도 놀라운 ‘영적 터치’의 순간이다.

3. 서로를 영적으로 터치하라.

(행 9:40-42)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경배, 간절함)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터치) 일으키고 성도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공동체, 간증) ~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

(행 3:6-7)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물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내 전 재산, 내 전부, 예수님)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 오른손을 잡아(터치)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몸의 회복)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거룩한 공동체의 회복) ~ 하나님을 찬송하니(영적인 회복)”

한 형제의 간증

(행 4:30) “손을 내밀어(터치) 병을 낫게 하시옵고(치유) 표적과 기사(기적)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기도) 하더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2022 상반기 <순장, 부순장 세미나> 교안(2)

<전체 주제 : 영적 터치, 인격적 만남> (시 73:23)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커다란 변화를 ‘뉴 노멀’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1. 비대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인격적 만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공동체적 존재’이다.
사람들은 이 비대면 시대에 ‘깊고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다.

(살전 2:17-18)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들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이나 이후에나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다.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깊은 ‘영적 터치’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순모임’이다.

2. 인격적 만남이 ‘건강한 소그룹’과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많은 제한을 받아 왔지만,
‘건강한 교회’는 여전히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소그룹 모임’이었다.

3. 인격적 만남의 핵심은 ‘돌봄과 보살핌’이다.

거리두기/비대면 시대에는 외로움이 커져서 ‘돌봄과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
전도와 새신자 정착은 물론 기존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소그룹 모임과 일대일 관계를 통해 서로의 영혼과 삶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다양한 영적 돌봄의 형태 (케네스 보아)>

1) 영적 우정

영적 우정은 영혼 돌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저 동료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 대화를 주고 받는 ‘영적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 공유할 때,

영적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다.

‘아남 카라’(anam cara, 게일어/Gaelic) 또는 ‘소울 메이트’(Soul mate)라는 말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내지 ‘영혼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로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보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역자’이다.

이런 우정 관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도 함께 바라보는 관계이다.

2) 영적 인도

영적 인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난다.

영적 인도자는 조언이나 지도를 구하기 위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얼굴을 마주하거나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또는 편지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C. S. 루이스, 헨리 나우엔, 파스칼, 어거스틴과 같은 ‘영적 거장들의 책’을 읽고 그 정신과 가치관을 배움으로써 ‘영적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읽을 뿐 아니라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읽으면 더욱 유익하다.

3) 영적 멘토링

멘토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더욱 앞서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적 훈련과 실습’을 도와주는 ‘영적 코치’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무장시키고, 영적으로 세워준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깊이 알아가도록 조언해 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달란트)와 부르심(소명)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준다.

4. 인격적 만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상황들은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줌으로써 온전한 ‘예수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순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